

4. 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

공간계획연구부 신동호 책임연구원

1. 대내외 여건변화

① 경제성장 대비 지역 고용창출력 미흡

■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충남 고용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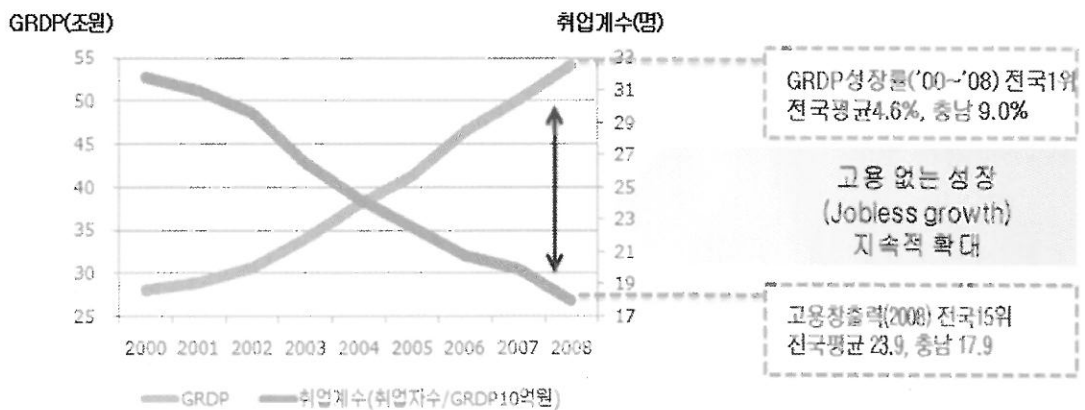
- '00~'08년 기간 중 전국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.4%씩 증가함
 - 충남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.1%씩 증가하고 있으나,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침

< 취업자수 추이 >

구분	2000	2008	연평균증가율 ('00~'08)
	(천명)	(천명)	
전국(A)	21,156	23,577	1.4
충청남도(B)	891	973	1.1
(B/A)*100	4.2	4.1	-

■ 고용 없는 성장(jobless growth) 심화

-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 확대 vs. 고용창출력 지속적 감소
 - 연평균 경제성장률('00~'08) : 충남(9.0%), 전국(4.6%)
 - 충남 GRDP 중 제조업 비중 : 34.0%('00) → 49.8%('08)
 - 취업계수(취업자수/GRDP 10억원) : 28.8명('00) → 17.9명('08)
-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·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 지속적 감소



< 도내 지역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추이 >

② 「고용 없는 회복(jobless recovery)」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

■ 고용흡수력 둔화로 인해 고용회복속도 더딤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촉발된 도내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는 생산둔화 및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감을 야기한 바 있음
 -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경기침체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도내 경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과 병행한 고용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
- 다시 말해, '고용 없는 회복(Jobless recovery)'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음
 - 즉,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의 효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, 노동시장의 회복세는 경기회복세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정임
- 더욱이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집중 흡수되어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도 상존함
 -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은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,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

■ NEET(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, NEET)현상 지속

- 좋은 일자리(descent job) 부족은 청년층의 일자리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소위 '일하지 않고 일하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'를 일컫는 니트족을 양산하는 경향
 - 최근 국가주도의 희망근로, 공공근로, 청년인턴십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대책은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이러한 니트현상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노출

2. 현황 및 추진실태

■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대책

- 중앙정부는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, 공공근로, 청년인턴십 등을 추진함
 -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
 - 청년인턴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층(15~29세)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인턴, 행정인턴, 중소기업인턴 등 다양한 인턴십 제도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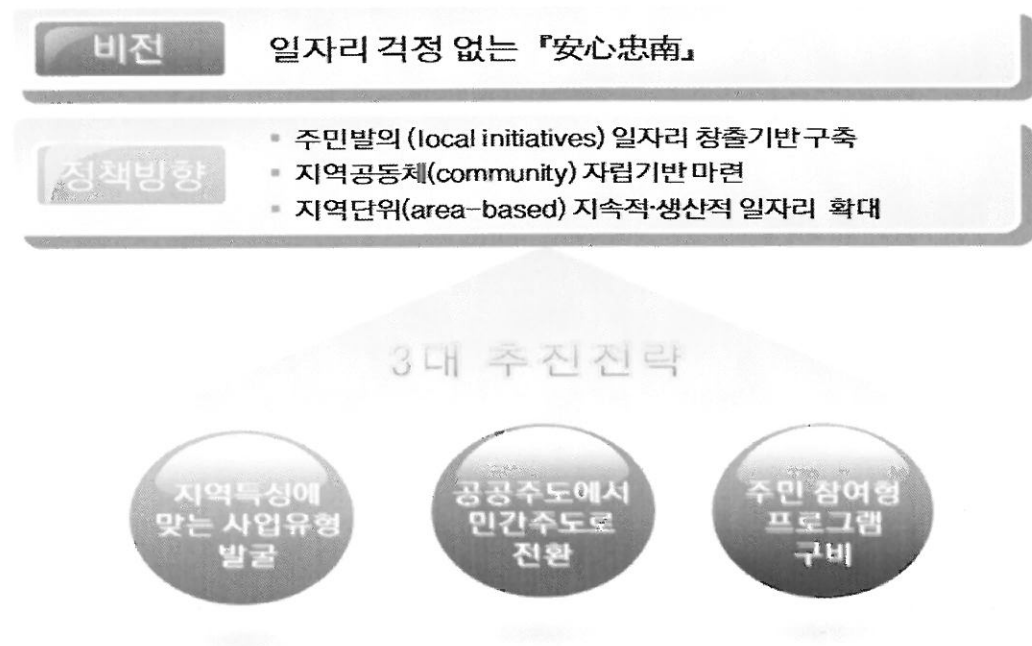
-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실업대책사업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행

■ 한계점

- 동 대책들은 당초 취지인 실업자 흡수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를 높이는 결과 및 실업대책간 상충관계(trade-off)를 야기하기도 함
-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, 사업 시행 후 공공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축효과(crowding-out effect)발생, 저소득층의 참여부진, 사업종료 후 참여자 대책부재 등의 한계를 노출함
- 청년인턴의 경우,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취업 전망이 어두운 실정
- 끝으로 희망근로, 공공근로, 청년인턴간 사업내용의 차별성 한계로 일자리의 유사·중복성 문제가 나타남(예를 들어, 희망근로 참여자가 공공근로, 청년인턴과 같은 일을 하거나 자활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)

3. 기본구상(비전체계)

① 비전체계



② 정책방향

■ 주민발의(local initiatives)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

-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민간주도의 고용창출방식으로 점진적 전환
 - 기존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방식(Local Initiatives Program, LIP) 도입

■ 지역공동체(community)자립기반 마련

- 지역공동체의 참여유도를 토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
 - 지역의 특성·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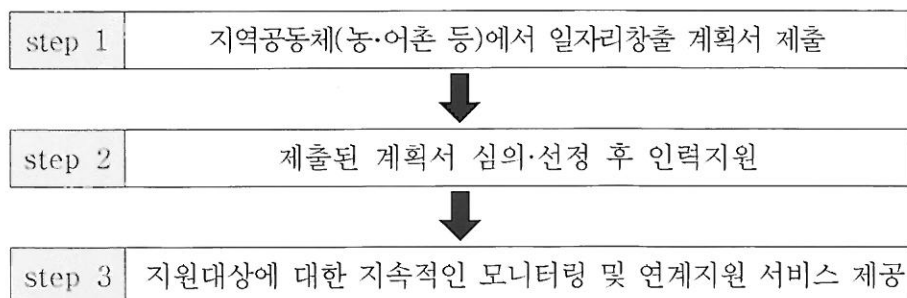
■ 지역단위(area-based) 지속적·생산적 일자리 확대

- 농·어촌 등 고용취약지역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해당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
 - 지역단위에서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

③ 추진전략

■ 주민발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(Local Initiatives Program, LIP) 추진

- 기본 방향
 -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모델 발굴
 -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주도로 전환
 - 주민참여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구비
- 운영방식



-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
 - 지원규모 : 당해년 일자리 창출 전체예산 또는 공공근로 인력 중 일정비율(%)
 - 지원대상 : 자영 농축어가, 영농법인, 주민단체 및 조합
-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
 - 지원분야 : 일손이 부족한 농·어촌 분야 및 경제활성화 전 분야
 - 지원방식 : 소정 양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계획서와 관련서류 on-off line 제출
- 선정방식 및 지원내용
 - 선정기준 : 일자리 창출계획서의 수익성(경제성), 일자리 창출규모 및 지속성, 공공근로 인력투입의 가능성(합법성) 등
 - 선정절차 : 서류심사 후 면접 및 현장확인
 - 지원내용 : 신규 일자리 임금 또는 공공근로 인력의 일정비율(%)
- 운영주체 : LIP 추진본부 구성
 - 道 및 16개 시군 관련 실과
 - 전문가 그룹 구성(교수 +농어촌 단체 +정책실무자 등)